

창조과학의 의미와 노아 홍수의 역사성

이은일 (온누리교회 창조과학 선교팀)

1. 창조과학의 의미

온누리 교회 창조과학 선교팀은 한국 창조과학회의 교회 지부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 창조과학이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학생 교육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증명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지금도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창조과학을 통해 과학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38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충만하여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할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베드로의 설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저 종교의 하나 또는 구원방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없이는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3);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6)”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돌밭이나 길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빅뱅에 의해 탄생되었으며, 사람도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미 폐기 처분된 이론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마치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물론, 진화론이 거짓된 이론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곧 하나님을 믿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힘든 것입니다.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될 때, 복음의 거침돌이 제거되고, 이때 복음이 증거 되면,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말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 자신의 직업, 전공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과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이후 인본주의가 모든 학문분야를 지배하게 되고, 진화론에 의해 기원의 문제까지도 물질

주의로 다 해석하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은 단지 고대의 종교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신학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인간의 이성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동산, 노아의 홍수 등을 신화로서 취급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등은 시각적인 착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도리어 과학적인 증거가 진화론적인 해석보다 성경의 기록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기록된 성경말씀이 진리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과학과 성경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노아 홍수의 역사성

노아 시대의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인류 역사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홍수 사건을 단지 종교적 신화로 해석하고 싶어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웃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 홍수가 시작 되었을 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진화론은 지구 전체를 덮은 대홍수의 흔적을 도리어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지질학적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진화의 단계에서 나타난 생물의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과거 지층의 형성이 현재 흙먼지가 쌓이는 속도와 동일한 과정을 겪어서 형성되었다는 “동일 과정설”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층이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또한 화석자체가 “동일 과정설”에 의한 지층형성에 의해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 표면을 거의 덮고 있는 퇴적암과 화석들은 대격변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들입니다. 생물들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며, 홍수의 대격변에 의해 매몰되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도 대진화의 과정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진화가 일어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단지 생물학적 이론이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역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든 역사적 해석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시작과 진화론적 역사의 시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진화된 후에 문명을 이루기 위해 250만년의 문화적 진화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도구의 개발로 사람들의 머리가 좋아져서 오랜 시간을 거쳐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진화론적 역사관과 이미 지혜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도구를 개발하고 문명을 이루었다는 창조론적 역사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까요?

성경은 과학책도 역사책도 아니지만,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기원부터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이 인류 역사의 진정한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에벨은 농사와 양치는 직업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제사 문제로 에벨을 죽이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 자신의 성 “에녹성”을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에녹성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에녹성의 문명은 도시 문명과 같이 화려했습니다. 한편 셋의 후예는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려한 에녹성의 문화로 유혹된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을 하면서

함께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선언되었고, 노아만이 진노의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케 하였고, 그 후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시작, 심판, 구원의 역사와 진화론에서 말하는 역사 어느 것이 진실인가요? 생물학적 진화론은 이미 부정되는 가설이며, 대홍수와 같은 격변이 이 지구 위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 보다 길며, 그 크기는 17,600종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를 한 쌍씩 싣기에 충분합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많은 민족에서 200여개 이상 발견됩니다. 각 민족의 종교,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홍수가 있었고, 자신의 조상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특히 북미 인디언이 남긴 그림을 보면 성경의 기록과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는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러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지는 것입니다. 지구 위의 모든 수증기를 비로 내리더라도 해수면이 5 cm 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 해답중의 하나는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하늘입니다. 즉 노아홍수 이전의 하늘위에는 물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하지 힘들지만 궁창(하늘)에 물층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또한 어떤 힘으로 이런 물층이 하늘에 있었을 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지만 이런 물층이 없다면 생길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로 오는 방사선을 차단하는 것이 오존층밖에 없지만 그때는 지구로 오는 해로운 우주방사선이 많이 차단되어 지구상의 생물들의 노화현상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물층으로 덮여 있으므로 대기압이 높아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체내의 노폐물이 쉽게 분해되어 노화현상이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물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저주파중 열선을 흡수 산란시키고,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이룰 것입니다.

남극대륙을 조사한 결과 지금은 빙하로 덮여있지만 과거에는 초목이 무성하여 동물이 살던 환경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북극에도 아열대지방에서만 자라는 활엽수 숲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시베리아에서도 초록색 잎을 지닌 2.7미터 크기의 과일나무가 발견되는 등 지구 전체에 걸쳐 아열대권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화석의 증거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종의 식물이 과거에는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전의 지구가 따뜻하고 해로운 방사선이 지금보다 없어 식물들도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식물이 오래 살았다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홍수 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수명이 격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증거는 뚜렷합니다. 화석의 형성 자체가 격변적인 상황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고기 화석들을 보면 화석의 형성이 매우 갑작스럽고 빠르게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지층을 관통하는 다지층 나무는 격변적인 상황에서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공룡은 거대한 동물로 대표됩니다. 과거 지구상에 위용을 자랑하던 공룡들이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거대한 동물이 살려면 기후의 변화가 심하지 않아야하고 섭취할 풍부한 식물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줍니다. 공룡이 갑자기 지구에서 멸족한 이유중 가장 유력한 것은 운석멸족설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갑자기 멸망하게 된 증거가 많아 지구 빙하기로 인한 것이라는 학설보다는 운석에 의한 것이라는 학설이 유력함

니다. 이는 지구를 향해 갑자기 많이 떨어진 운석에 의해 공룡이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설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공룡의 화석주위에 희귀금속인 이리듐이 발견되기 때문인데 이 금속은 운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리듐이 화산재에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석 멸족설은 지구의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많은 해양동물이 함께 멸망한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물들이 방대한 규모의 빙하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육지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때 조산운동을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섬들과 반도는 그 일부가 물에 잠기기 전에는 서로 이어진 대륙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안데스 산맥등은 이런 조산운동에 의한 결과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에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웃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여기까지는 대홍수를 의미합니다. 연결된 말씀에서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리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여기는 홍수가 땅에서 물러남을 노래하고 있으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라고 산이 높게 솟아오르는 조산운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 노아의 세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기록일 뿐 어떤 역사책에서도 이런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바벨탑을 쌓은 인류들은 언어가 달라져 흩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흩어진 인류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조작하고 대홍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하여는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제때 상제께 드리는 제사축문은 창세기나 시편의 기록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섯별이 운행하기도 전에 해와 달이 형제가 없고, 소리도 없어 빛을 발하기도 전에 이 땅위에 공허와 흑암만이 있었노라. 그분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을 펴시고, 그분께서 인간을 지으셨도다. 그분의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천지와 모든 만물이 지음을 입었노라”

중국의 한자는 창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를 들면, 창조를 의미하는 조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 창조하셨다는 내용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선자가 있다. 배 선(船)자는 배(舟)와 여덟을 나타내는 팔(八)자와 사람수를 나타내는 입구(口)자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8명이 방주에 탔음을 나타냅니다. 노아의 가족이 모두 8명이었던 것과 과연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한 중국의 홍수전설에 모든 중국인은 대홍수를 극복함으로써 이름을 떨친 옛선조 ‘누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누와가 노아와 발음이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義”자는 양과 나를 의미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대신에 양이 죽은 것이 의로움’이라는 제사제도와 연관지어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신앙의 자취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한 많은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단군의 가르침을 구전으로 전하는 규원사화를 보면 우리나라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노아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분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를 주관하시므로 넓고 넓어서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고 밝고 밝아서 티끌 하나도 새어 나가지를 않는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요 둘이 아니므로 오직 마음을 깨끗하여야 그 날에 이를 것이다.”

노아 시대 홍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로 노아 홍수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눅 17:26, 27)” 마

지막 때도 사람들은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심판에 대한 성경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단순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노아의 후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후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창조주로서 역사를 시작하게 하였고, 역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심판주로 이 역사를 마무리 하실 분입니다.